

Young Creator 김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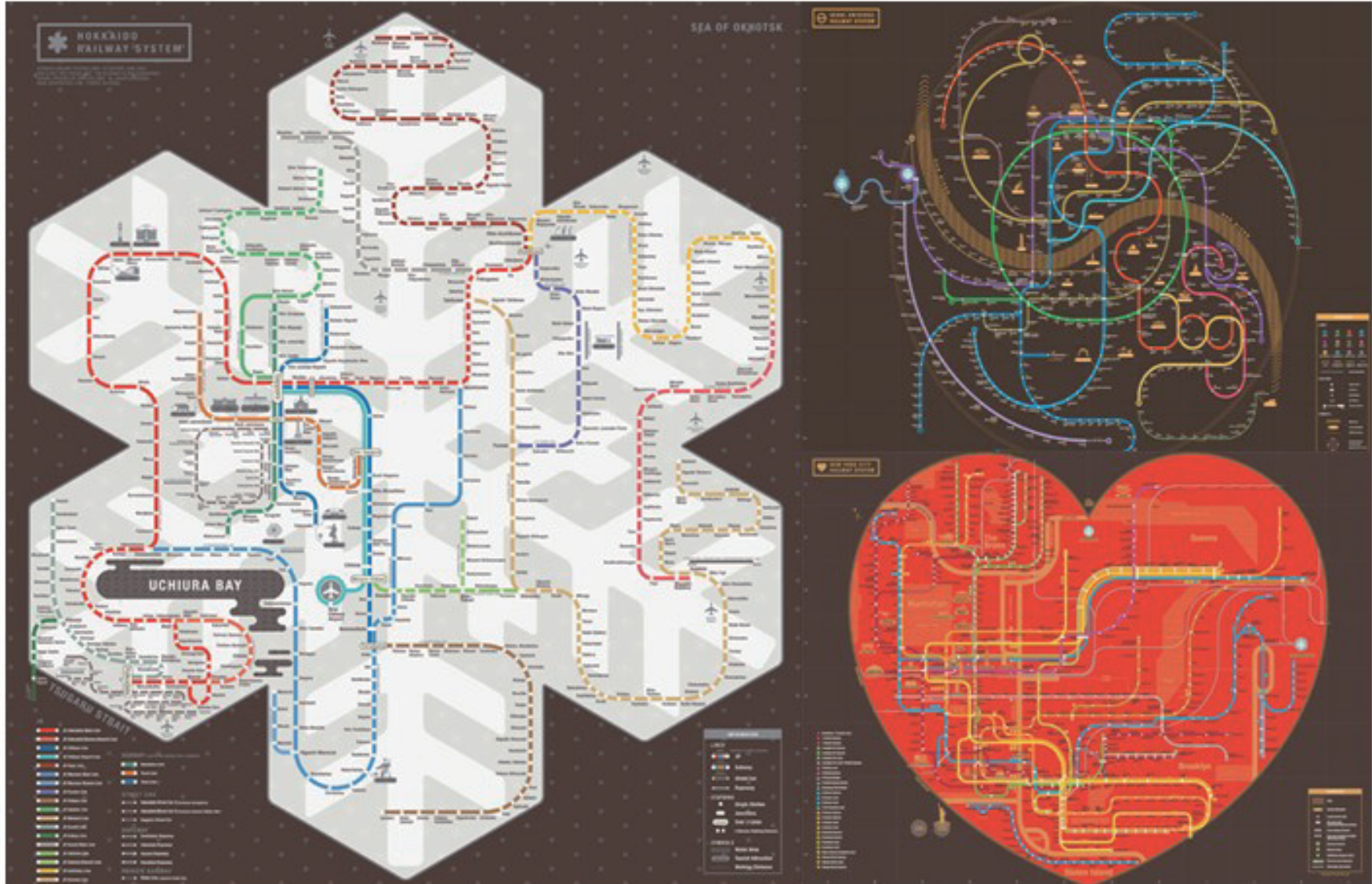


사진 1> 김지환 아트디렉터와 전시작품 'City Railway System'

기존 대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선도는 단지 명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에 두고 있다면 제로퍼제로의 City Railway System은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노선도에 풀어 넣은 새로운 컨셉의 Railway Map이다. 서울은 한강을 국기의 태극모양으로, 뉴욕은 밀턴 글레이저의 I ♥ NY 의 하트를, 도쿄는 국기의 원을, 오사카의 명물인 타코야키의 문어를, 홋카이도는 기후특색을 살린 눈의 결정형 컨셉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2006년 봄에 시작된 작업은 김지환 아트디렉터가 일본에 교환 학생으로 있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쿄가 가장 먼저 제작된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의 프로세스 과정은 먼저 세계 유명 도시의 기존 노선도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관심 도시를 선정하여 여행경험을 통한 도시분위기나 특징을 컨셉화 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메인 타겟은 관광객들로서, 그들에게 지하철은 가장 정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지하철 노선도에 녹아 들어간 심볼들을 자연스럽게 도시의 이미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노선도에 랜드마크와 어트랙션을 접목하여 관광객들이 도시의 관광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선도 자체가 기념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부여했다. 특히, 포스터 사이즈의 노선도에는 캘린더 기능을 더하여 실용성까지 추구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시의 특성을 컨셉에 적용한 City Railway System 디자인은 개인 디자인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화된 디자인제품으로써의 훌륭한 롤 모델이다. 3년간 4차례의 리뉴얼 작업을 거친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애착과 끊임없는 노력을 쏟는 제로퍼제로의 열정이 느껴진다. 그들과 같은 열정과 창의적 재능을 가진 젊은 디자이너들의 넘치는 의욕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디자인 국으로 발전가능성과 함께 멀지 않은 미래의 글로벌 스타디자이너 탄생을 기다려본다.

*About ZERO PER ZERO

홍익대를 졸업한 김지환, 진솔 2명의 디자이너로 결성된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로 정보디자인, 일러스트, 브랜딩, 애니메이션 등 그래픽디자인의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제로퍼제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그래픽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행복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래픽적인 컨셉으로 출발한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City Railway System은 2008년 iF communication design award 금상 수상, IDEA, 뉴욕 ADC, 홍콩 DFAC대상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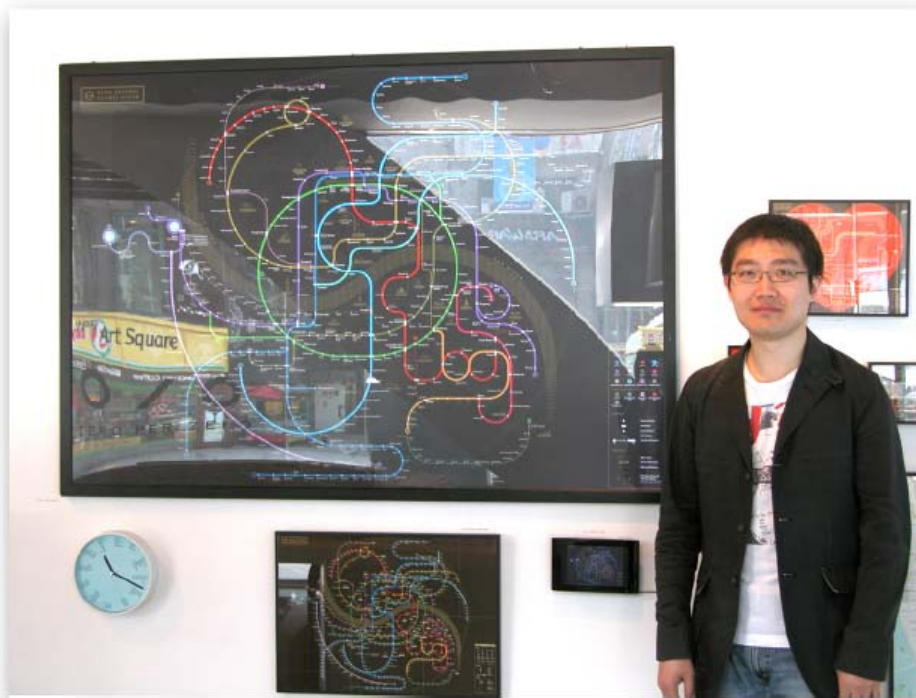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팟 르포르타주

취재/사진: 최 성윤 (트렌드 리서처)

개재자: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All Reserved. 2009

주목되는 디자이너: 제2편

Young creator 김지환

랜드마크와 어트랙션을 가미한 시티 디자인 맵핑이 시작된다. 디자이너 개인의 여행경험을 통한 도시분위기나 특징을 컨셉화 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과정, City Railway System

•iF communication design award
금상 수상

‘City Railway System’

제로퍼제로: 아트디렉터 김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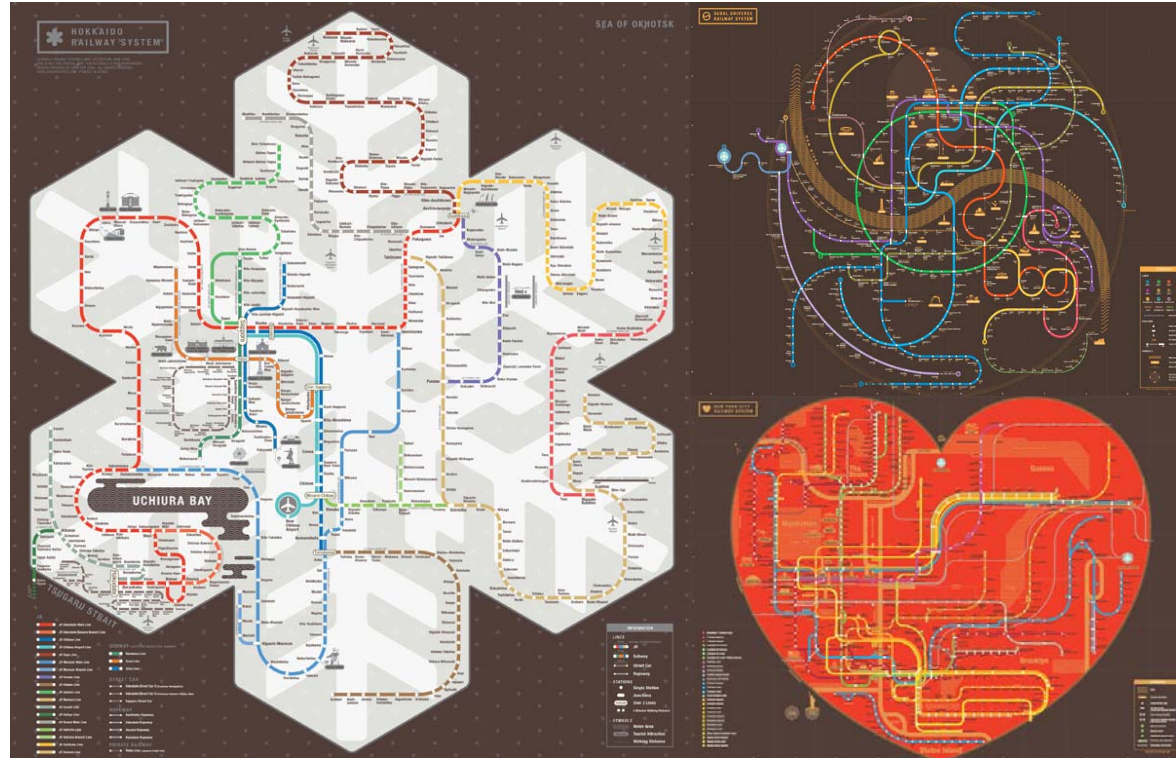


사진 1> 김지환 아트디렉터와 전시작품 ‘City Railway System’

인터뷰 요청을 위한 전화상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과 첫인상이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졌던 제로퍼제로의 김지환 아트디렉터. 역시 그의 작품에서는 섬세함과 크리에이티브가 함께 느껴진다. KT&G 상상마당 1층 ‘Art Square’에서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시되는 오랜 시간과 여러 단계의 작업 과정을 통해 제작된 흥미롭고 실용적인 디자인 작품 City Railway System을 소개한다



사진 2> 전시장 내부 전경

<전시내용>

기존 대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선도는 단지 명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에 두고 있다면 제로퍼제로의 City Railway System은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노선도에 불어 넣은 새로운 컨셉의 Railway Map이다. 서울은 한강을 국기의 태극모양으로, 뉴욕은 밀턴 글레이저의 I ♥ NY 의 하트를, 도쿄는 국기의 원을, 오사카의 명물인 타코야키의 문어를, 홋카이도는 기후특색을 살린 눈의 결정을 컨셉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2006년 봄에 시작된 작업은 김지환 아트디렉터가 일본에 교환 학생으로 있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쿄가 가장 먼저 제작된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의 프로세스 과정은 먼저 세계 유명 도시의 기존 노선도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관심 도시를 선정하여 여행경험을 통한 도시분위기나 특징을 컨셉화 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메인 타겟은 관광객들로서, 그들에게 지하철은 가장 정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지하철 노선도에 녹아 들어간 심볼들을 자연스럽게 도시의 이미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노선도에 랜드마크와 어트랙션을 접목하여 관광객들이 도시의 관광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선도 자체가 기념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부여했다. 특히, 포스터 사이즈의 노선도에는 캘린더 기능을 더하여 실용성까지 추구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IMAGE FROM SEOUL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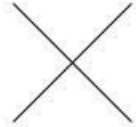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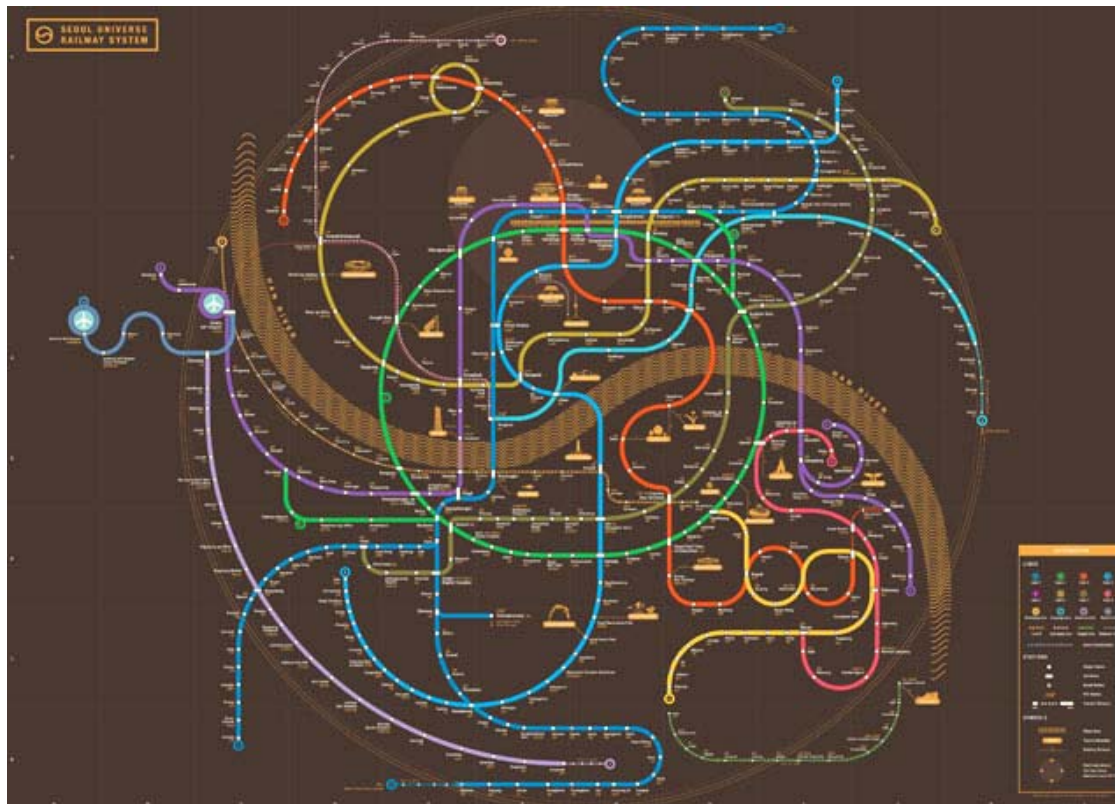


IMAGE FROM GOOGLE MAP



City Railway System 프로젝트는 나아가 월페이퍼 시티가이드, luxe, 레드맵 등에 맞서는 도시 관광안내 시리즈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진 3> 서울 지하철 노선도

TOKYO UNIVERSE
RAILWAY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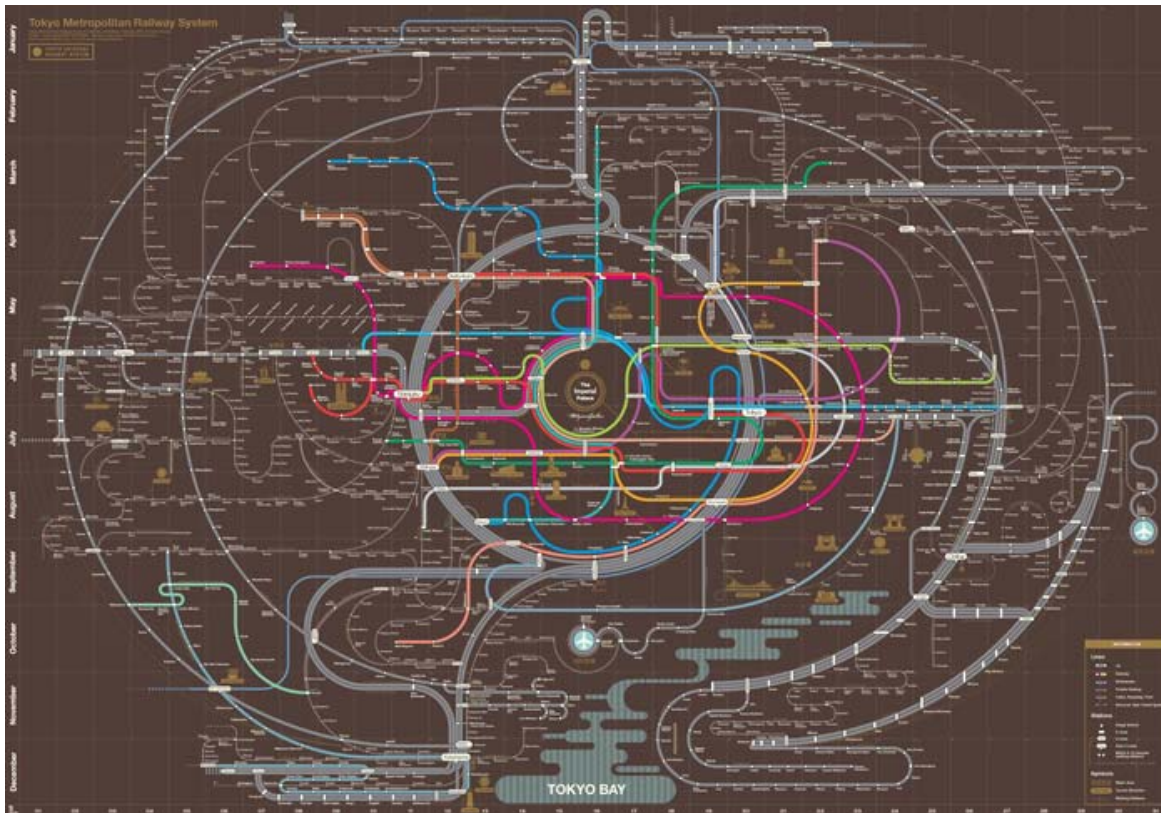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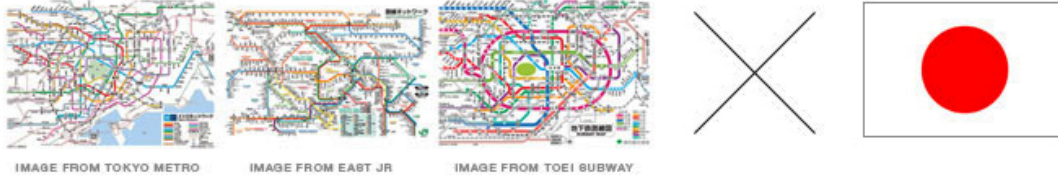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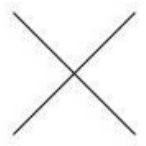


사진 4> 도쿄 지하철 노선도

NEW YORK CITY RAILWAY SYSTEM



IMAGE FROM MTA



I ♥ NY.
DESIGN BY MILTON GL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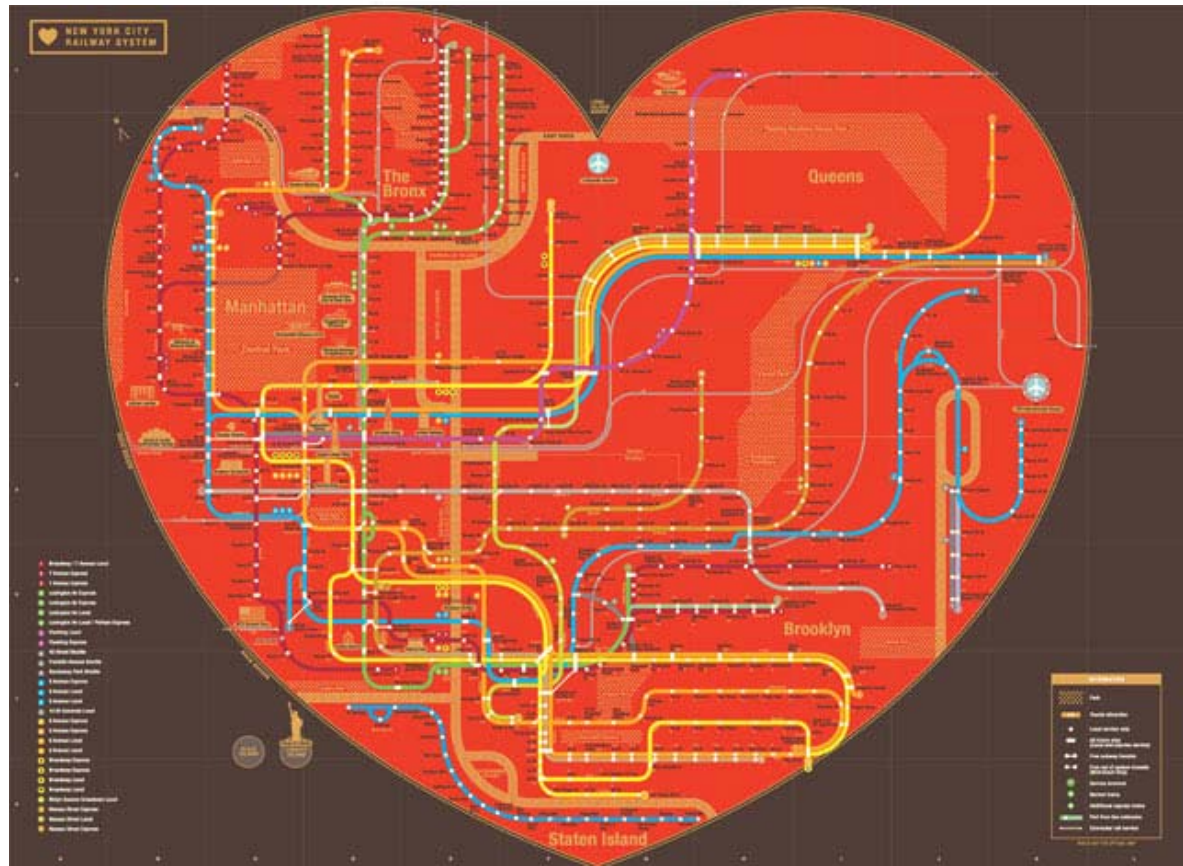


사진 5> 뉴욕 지하철 노선도

OSAKA UNIVERSE RAILWAY SYSTEM



IMAGE FROM OSAKA SUBWAY



IMAGE FROM WEST J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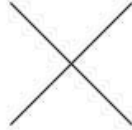


IMAGE FROM GETTY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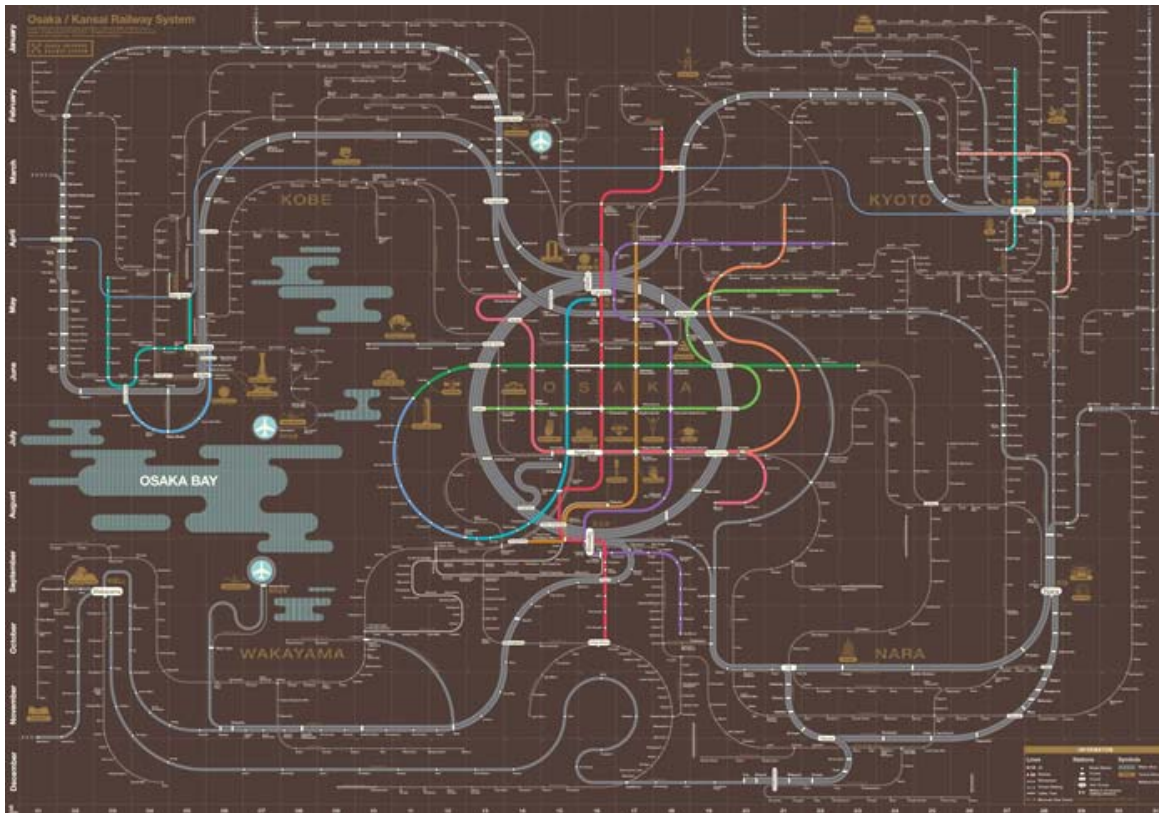


사진 5> 오사카 지하철 노선도



사진 6> 홋카이도 City Railway System - 눈 컨셉의 디자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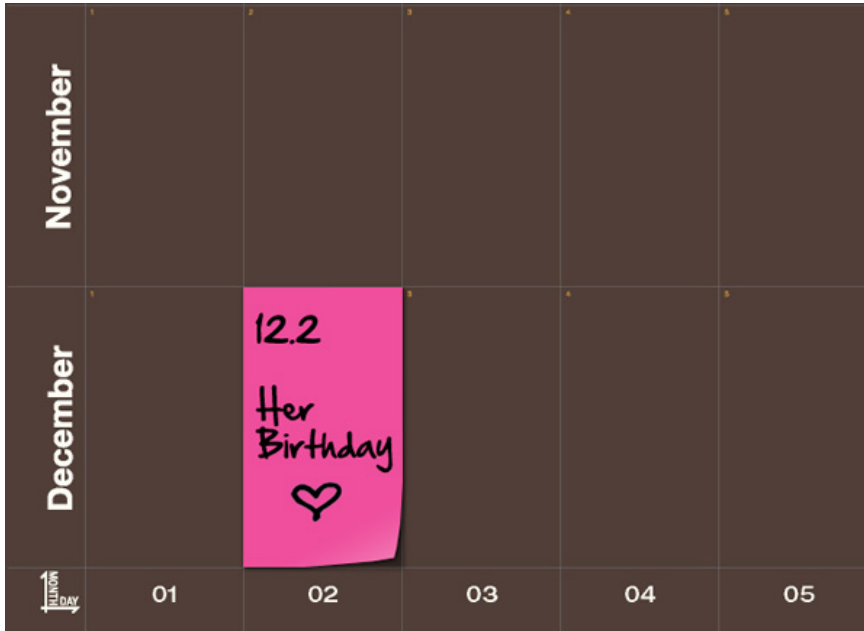


사진 7> 포스터 사이즈 제품에 적용된 캘린더System으로 떼고 붙일 수 있는 메모지에 날짜와 스케줄을 적어 사용하도록 구성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사진 8> 다양한 사이즈의 City Railway System

<취재후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시의 특성을 컨셉에 적용한 City Railway System 디자인은 개인 디자인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화된 디자인제품으로써의 훌륭한 롤 모델이다. 3년간 4차례의 리뉴얼 작업을 거친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애착과 끊임없는 노력을 쏟는 제로퍼제로의 열정이 느껴진다. 그들과 같은 열정과 창의적 재능을 가진 젊은 디자이너들의 넘치는 의욕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디자인 국으로 발전가능성과 함께 멀지 않은 미래의 글로벌 스타디자이너 탄생을 기다려본다.

***About ZERO PER ZERO**

홍익대를 졸업한 김지환, 진솔 2명의 디자이너로 결성된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로 정보디자인, 일러스트, 브랜딩, 애니메이션 등 그래픽디자인의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제로퍼제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그래픽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행복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래픽적인 컨셉으로 출발한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City Railway System은 2008년 iF communication design award 금상 수상, IDEA, 뉴욕 ADC, 홍콩 DFA대상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다..